

강진·순천의료원 공익·혁신은 ‘뒷전’

전남도의회 압박에 내놓은 경영 활성화계획 흑자 창출에 올인 “적자 탈피...” 농촌 인구 감소 현실 외면 임시방편 방안만 제시

전남지역 공공의료기관인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의 경영활성화계획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거점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의료원의 운영 취지에 어울리지 않게 수익성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의회가 경영 혁신방안을 요구하며 예정됐던 행정사무감사까지 중단하며 압박하자 충분한 고민없이 임시방편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강진의료원은 이날 열린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발생하는 경영적자를 2년 뒤인 2021년부터 흑자로 돌려놓겠다는 ‘경영활성화 계획’을 제출했다. 도의회가 지난 15일 현장 감사에서 “계속된

적자경영에도 혁신적 경영방안이 없다”며 감사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경영혁신방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강진의료원은 지난 2017년부터 수입보다 더 많은 비용을 쓰는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적자 규모도 12억3700만원(2017년)→14억8000만원(2018년)→18억7100만원(2019년 예정)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같은 경영 구조를 오는 2021년부터 흑자로 바꿔 4년 뒤인 2023년에는 32억1800만원의 이익을 내겠다는 게 활성화계획의 골자다.

의료원은 개선방안으로 ▲정형외과 특성화 및 이비인후과 개원 등 필수 진료과 활성화 ▲복지부 경영 컨설팅결과를 반영

한 퇴행성 관절 전문진료, 재활센터 및 병동특화 ▲장례식장 등 활성화 ▲의료수익 증대를 위한 진료과별 목표관리제 ▲응급실 환자 입원을 증가로 병상 가동률 85% 이상 유지 추진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의료원측이 제시한 ‘진료과별 목표관리제’의 경우 과별로 전년대비 10% 이상 수입을 늘리는 목표를 세웠는데, 인구 감소 현실을 외면한 채 수익 극대화를 위한 환자 유치에만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의료원 환자 수는 20만2987명(2016년)에서 20만2266명(2018년)으로 줄었고 올해도 9월말 현재 전년도 같은 기간(14만8305명)에 견줘 7.2% 감소했다.

여기에 농촌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진료수입 목표 달성 시 초과진료수당 지급’이라는 성과급제 형태를 운영하면 공공 의료의 기능보다 환자 유치 경

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게 전경선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의 지적이다.

필수 진료과 활성화 및 노인성 질환 전문 진료센터 등도 복지부 경영 컨설팅 결과를 반영했다고 하지만 농촌지역 의료기관에 근무할 의료진 확보와 지난해 2개월 만에 폐지했던 재활의학과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포함한 것이라는 점에서 ‘땀질식’ 조치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강진의료원의 경우 올해 초 전남도가 요구한 총무·원무과장의 외부 공모 등 경영·조직·진료 분야와 관련된 조직문화 혁신 방안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의료원도 올해 말 6억8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오는 2022년부터는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경영개선목표를 제시했지만 현실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게 도의원을 지적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中박람회서 270만 달러 수출 MOU

중소기업 8개사 작년 2배 실적

전남도는 지난 10일까지 6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농수산물과 화장품 등 전남지역 수출 중소기업과 함께 참가해 270만 달러 규모의 현장 MOU를 체결하는 등 결실을 맺었다. 이는 지난해 제1회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 전남도내 중소 수출기업 8개사가 참가했다. 이들은 수출상담 225건, 상담실적 640만 달러, MOU 체결액 270만 달러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주원염전의 천일염, 맛나푸드(주)의 김스낵, (주)장수식품의 유자·도라지·배즙, (주)제이엘비의 천연 화장품 등이 현지 바이어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이 수출뿐 아니라 수입에서도 ‘G2’ 국가로서 국제무역의 중심역할을 한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박람회를 방문했으며 181개 국가와 지역 91만여 명이 박람회를 찾았다.

최근 중국정부가 한국 관광객 제한조치를 일부 해제하는 등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전남지역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9월 기준)보다 48.3% 늘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앞으로 더욱 중화권 수출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중화권에 전남 농수산물 상설전시판매장 3개소를 개설하고, 2020년부터는 저장성 상무청에서 운영하는 ‘대외무역 공공서비스 플랫폼’ 온라인 ‘전남 명품관’을 통해 해외 바이어에게 전남 제품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중국·대만·홍콩 주요 박람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판촉행사, 중화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전남 기업의 수출 확대에 매진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블루이코노미’ 혁신리더 4명 선정

농업 분야 3명, 수산 분야 1명

전남도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수산 분야에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블루 이코노미’ 혁신 리더를 발굴, 18일 ‘미래전남 혁신리더 대상’을 수여했다.

‘미래전남 혁신리더 대상’은 끊임없는 도전으로 전남의 미래전진을 제시하고 열심히 노력해 성공을 이끌어 귀감이 되는 도민을 발굴해 공감·소통함으로써 밝은 미래의 전남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상이다.

이날 첫 시상식에서는 농업 분야에 문병완 보성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박민호 영광 망고야농장 대표, 박병주 해남 산이잡곡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수산 분야에 장영진 영광 청우F&B 대표가 수상 영예를 안았다. 문병완 조합장은 2001년부터 18년간 보성농협조합장을 역임하면서 쌀도정시설이 농사용 전기료 적용이 되도록 권의해 경영수익을 높이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 모델을 개발하는 등 새 농가 소득원 창출에 노력했다. 박민호 대표는 전남지역 기후적 특성에 적합한 애플망고를 발굴해 재배하고 지역 농가에 재배기술을 보급해 새 소득작목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했다.

박병주 대표이사는 웰빙간식으로 인기가 높은 초당옥수수 조기 생산과 직거래를 통해 소득을 높이고,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지역농가에 기술을 이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장영진 대표는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다. 수산물 발효 가공업의 연구시설과 인력을 확충해 고품질 건강기능 발효식품 생산기술을 개발, 지역 기업에 이전하고 가공시설을 확장·현대화해 지역 수산물 생산의 안정과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전남도는 이번 첫 시상식을 시작으로 미래전남을 이끌 블루 이코노미 혁신 리더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신행 사랑의 김장나누기 18일 오전 남구 광주김치타운 광장에서 열린 ‘신행 우리동네 어부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김치를 버무리고 있다. 이날 담긴 김치 8kg 1500박스는 광주광역시푸드뱅크를 통해 소외가정에 전달된다. /최혜남 기자choi@kwangju.co.kr

전남도 SOC·연구개발시설 현안사업 국비 확보 전방위 노력

김영록 지사 세종시 방문 흥남기 부총리·농림축산부 장관 면담

전남도가 열악한 기반시설과 R&D(연구개발) 시설 예산의 국비 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사업이 오랜기간 지지부진하자 국회, 기획재정부, 정부 부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잇따라 찾아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 반영을 요청한 것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8일 세종시를 방문, 흥남기 경제부총리, 김현수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을 잇따라 만나 2020년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한 사업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흥남기 부총리에게 김 지사는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확대 지원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남해안·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호남고속철도 2단계 전 구간 개통 지원 ▲중대형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 ▲해상풍력 지원부드 및 배후단지 조성 등 사업의 최종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김 지사가 지난 13일 국회 의정당 및 예결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김 지사는 이어 김현수 장관과 면담에

서는 ▲기후변화대응 국립 농업연구단지 조성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제도 개선 ▲주요 노지채소 수급안정 지원 확대 ▲유기질비료(가축분 퇴비) 공급지역 제한 등 농정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흥 부총리는 “전남의 현안이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방문, 최정표 원장을 만나 철도 및 도로 등 전남지역 주요 기반시설 지원을 요청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

전남도는 18일 행정안전부의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제안제도는 국민이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한 창의적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행정안전부는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를 했다.

전남도는 정량평가에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한 제안이 2018년 289건에서 2019년 371건으로 늘었다. 또 채택한 제안도 2018년 25건에서 2019년 51건으로 증가했다. 채택 제안의 실시율 또한 51%를 달성,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성평가에서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제안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062)531-3530

H.010-9229-3530

MODERN (트윈스틸)

062)531-353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